

# 전주시, 세내교~중인교차로 4차선 확장

### 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설... 교통정체 해소 기대

전주시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들어서는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려되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1~2차선이었던 연계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2018년으로 예정된 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 준공시기에 맞춰 효천지구 내 대로와 연계된 삼천동 세내교~중인동 중인교차로(대로 3-1호·중로1-28호)까지 총 3.3km 길이의 도로를 폭 20~25m의 4차선으로 확장·개설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효천지구는 계획인구 1만3617명

(4460세대) 계획으로 현재 토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단지개발 완료시 교통량 증가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또, 최근 중인동 지역 아파트 및 다가구 주택 신축 등으로 거주 인구가 증가하고, 완산체련공원과 모악산, 금산사 이용객도 늘면서 서남부권 국토대체도로와 연계하는 도로 확장 개설이 시급한 구간이다.

시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로 교통정체가 우려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기존 편도 1차선이었던 세내교~삼천교(모악장레시앙 앞) 구간

제방길과 왕복 2차선이었던 삼천교~국도 21호선과 만나는 중인교차로까지 도로를 왕복 4차선 도로로 확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본예산에 10억을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도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 사업이 효천지구 연계 도로인 만큼 효천지구 개발이익금 및 가용 특별회계를 활용해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단계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그간의 신도시개발사업 연계도로 개설이 늦어져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었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 완료 전까지 설계를 추진하고, 단지개발 및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해 보상 및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세내교~중인교차로까지 우회로가 확장되면 효천지구는 물론 삼천동 등 서남부권 주민들의 중인교차로 접근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효천지구는 오는 2019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 만큼, 효천지구 연계도로 개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교통 혼잡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 사업이 지역발전 및 우리시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된 기반시설 확충에 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시축산농가 돕기 위한 닭고기 시식행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를 돕기 위한 닭고기 시식행사가 18일 전주시청 구내식당에서 김명지 시의회의장과 시 간부공무원 및 직원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김영재 기자

# 국내 최초 외국인 전용 '느린 우체통' 운영

### 전주시, 오목대·한옥마을 관광안내소 등 2곳 설치

국제슬로시티 전주에 국내 최초로 외국인 전용 느린 우체통이 설치 운영된다.

전주시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슬로시티인 전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도록 빨간·노란 느린 우체통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목대 관광안내소와 한옥마을 관광안내소 등 관광객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거점 2곳에 국내의 관광객들을 위한 '사드락사드락 빨간·노

란 느린 우체통'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시가 우정청과 함께 설치한 빨간·노란 느린우체통은 국내 관광객용과 외국인 관광객 전용 두 가지로 구분돼 운영된다.

국내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빨간 우체통이 설치됐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용 노란 우체통이 함께 설치돼 운영된다.

시는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빠른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관광객들이 슬

로시티 전주에서 아날로그적인 정서와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빨간·노란 느린 우체통을 운영하게 됐다.

이번에 설치된 빨간·노란 느린 우체통은 관광객들이 가족과 연인, 또는 본인 등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봄·여름·가을·겨울로 구분해 약 3개월 후에 받아볼 수 있다.

시는 앞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되면 동물원 물새장 주변에 제3호 느린우체통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 저신용자 서민들 대상 보이스포싱 전달책 검거

금융권 대출이 어렵거나 낮은 금리로 생활을 원하는 저신용자 서민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받아 가로챈 보이스포싱 일당의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18일 서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보이스포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전달책 김모씨(39,남)를 구속했다.

또한 수출회사를 운영하며 보이스포싱 업체의 범죄수익을 다른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속칭 '돈 세탁'을 한 차모씨(49,남)역시 구속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얻어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수의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을 원하는 서민들에게 거래실적이 필요하며 소액 현금서비스를 유도하고 이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늘 구속된 김씨는 저신용자들에게 가로챈 현금을 보이스포싱 일당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로 이 같은 범행을 확인하고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대포폰과 입금내역증, 수표 255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 김씨가 보이스포싱 조직에 입당한 2500만원이 들어 있는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해 피해금 일부를 회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가 소속된 보이스포싱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 아내 살해 남편구속 4일만에 자백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남편 최모씨(55)가 구속 4일만에 살해 방법을 밝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8일 최씨가 경찰조사에서 "교회 예배를 다녀와서 아내를 목 졸라 죽였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차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에 불을 지른 경위에 대해서는 "목장갑을 차안에 쌓아두고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최씨는 차에 불을 지른 후 미리 인근에 가져다 둔 자신의 차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방법은 드러났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최씨가 끝까지 함구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는 경찰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계획적 범행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우발적이다'라고 주장하지만, 도주할 차를 미리 준비하는 등 그의 행동을 미뤄 보면 계획적인 살인으로 추정된다"며 "곧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 53분경 아내 고모씨(53)를 살해한 뒤, 아내의 사체가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구속돼 있다.

최씨는 최초 조사에서 "냉이를 캐러 간다고 했는데 사고를 낸 것 같다. 아내가 사망한 사실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았다. 절대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이날 범행을 인정했다.

/김민근 기자

# 버스비 2400원 횡령한 버스기사 2심서 해고 무효소송 패소

고작 버스비 2,400원을 빠뜨리고 납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호남고속의 버스기사가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함상훈)는 18일 버스기사 이모씨(53)가 (유)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했던 복직선고를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월 3일 완주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승님의 버스비 4만 6,400원 중 4만 4,000원만 납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호남고속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무게를 뒀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고

해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결국 같은해 4월 17년간 다녀냈던 직장을 잃게됐다.

이씨는 해고된 직후 "사측이 강성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실령 2,400원이 횡령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는 납득할 수 없다"고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5년 10월 이씨를 10일 이내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받지못했던 2,380만원의 임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다"며 "하지만 원고가 17년간 한 번

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를 시키는 것은 과한 징계"라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사측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승차요금 2,4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 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해고 사유로 정한 '운송수입금 착박'에 해당한다고 보여 해고와 관련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씨는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김민근 기자

# 노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벤치마킹 줄이어

전주시의 생태하천 복원 우수사례를 배우려는 타 지자체의 발길이 줄어 오고 있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일환 인천 부평구의회 굴포천 복원 재생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부평구·부평구의회 관계자 등 19명이 전주시 노송천복원 프로젝트 사업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전주를 방문했다.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사업은 전주의 구도심을 관통하는 도심하천인 노송천의 하수도화된 복개구간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방문은 인천 부평구에서 추진하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 복개하천 복

원 우수사례로 손꼽힌 노송천 복원사업 추진과정과 주민지원사업 등 복원 전반에 대해 배우기 위해 추진됐다.

이들은 유영문 전주시 경교장은도시과장의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후, 노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08년 환경부 '도심 복개하천 복원' 선도사업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70%를 지원받아 총 401억원을 투입해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를 전개해왔다.

지난 2012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됐으며, 현재는 올해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2단계 사업(건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김영재 기자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